정치권 광주·전남 설 민심 살펴보니

신당-민주 통합 주판알만 튕겨서야

이명박 정부 어떻게 국정 운영할 지 갈피 못잡아 답답

총선 물갈이 기대… "과거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새정부가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 걱정이 많습니다." "거여가 될 한나라당을 견제하려면 민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통합을 해야하는데, 서로 주판알만 튕기고 있으니 한심하기만 합니다"

설 연휴를 맞아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광주·전남지역민, 그리고 이들을 상대로 민심 다지기에 나선 지역 정치권의 화두는 단연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와 우려, 그리고 총선의 향방이었다. 특히 지역 민심의 밑바닥에는 새 정부의 호남 홀대, 그리고 총선 이후 호남의 고립 가능성에 대한 깊은 근심이 깔려 있었다.

지역민들은 무엇보다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각종 정책들이 광주·전남권 주요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걱정스러워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및 해양수산부 폐지' 방침이나, '5+2 광역경제권 개발'계획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차례상 앞에 모여앉은 지역민들은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과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등 광주·전남의 미래를 이끌 굵직한 프로젝트에 차질이 빚어질까' 벌써부터 노심초사하고 있다. 또 5+2광역경제권 개발이 추진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남도가 추진해온 서남권종합발전계획은 물론, 동일 경제권에서 전북의 새만금사업과 상당부분 중복되는 J프로젝트가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당초 국가재정으로 건설한다고 했던 영산강 운하를 민자로 개발키로 하고, 광양항을 투포트 시스템에서 제외한다는 발언이 일부에서 나온 것도 지역민의 불안을 부추겼다.

서갑원(순천) 의원은 "이명박 당선인의 각종 인사발표가 나올 때 호남인사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을 보고 '전라도 인사 소외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우려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주민들은 또 여수 엑스포가 잘 치러질 수 있을지를 걱정하며 해수부와 농진청의 존치를 강하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김동철(광주 광산)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조선대 로스쿨 배제, 광역경제권 구성, 해수부 폐지 등 최근 들어 벌어진 호남 소외의 징후들을 보면서 울분을 토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민주 개혁 세력의 응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고 말했다.

해남에 사는 주민 박 모(55)씨는 "이 곳에선 J프로젝트가 축소, 또는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며 "아무리 호남권에서 (한나라당에) 표를 적게 주긴 했다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호남지역 주요 사업들을 모두 축소하거나 무산시키는 것 아니냐.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지역민들은 6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마땅히 선택할 만한 정당도, 인물도 없다"고 입을 모았다.

10년만에 한나라당에 대권을 내준 만큼 이번 총선에서는 전략적 선택이 있어야 하지만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의 통합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의원직을 거머쥔 현역 국회의원들로는 지역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정치권에 대한 불만에 불을 붙였다.

광주지역 한 유권자는 "고향에 내려가서 들어보니 현역 국회의원이 동네 이장보다 못하다는 얘기들이 많았다"며 "과거 선거처럼 유권자들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석자들이 10일 국회 행자위에서 열린 3차 6인협상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유인태 국회행자위원장, 김효석 민주신당 원내대표, 김진표 민주신당 정책위의장, (오른쪽부터)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한나라 "더이상 양보 없다" 배수진

정부 조직 개편안 협상 난항…12일 국회 통과 차질

설 연휴기간 타협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한 정치권의 정부 조직개편안 협상이 이번주초 타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8일 국회 행정자치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6인 협상'에서 통일부를 존치시키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이 아닌 독립기구로 두는 방안에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10일 3차 협상에서는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한나라당이 '통일부 존치'와 '국가인권위의 독립기구화'를 양보하면서 교착상태를 보이던 협상은 일단 극적 절충을 위한 초보적인 수준의 실마리를 마련한 상태이다.

나머지 쟁점은 해양수산부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 등의 존폐 문제, 금융위원회 설치 여부, 국가보훈처의 차관급 조정 등이다.

신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내용상으론 양보된 게 없다"며 "통일부는 처음부터 협상용이었고, 인권위는 어차피 독립기구로 가는 것이었다"며 8일 이뤄진 '6인 회담'의 성과물을 추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로 규정했다.

신당은 통일부 존치와 국가인권위 독립기구화 이외에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 등도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존치를 요구하는 내부의 목소리가 거센 점이 협상에 임하는 신당의 유연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더이상의 양보는 없다"며 배수진을 쳤다.

조직개편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통폐합 부처의 장관을 공석으로 둔채 차관 체제로 업무를 하는 '부분개각'도 불사하겠다는 게 한나라당의 태도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신당의 요구가 (정부조직개편의) 기본정신까지 훼손하는 수준이라면 우리는 차관 체제로라도 그대로 간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이 이처럼 맞서면서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예정했던 인수위의 구상에 차질이 빚어지는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1.71대 1, 전남 1.76대 1

한나라당 공천 신청 마감… 신안·무안 제외 전 지역 공천

지난 5일 밤 마감된 한나라당 공천신청 결과, 전국 평균 경쟁률이 4.83대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공천 희망자가 없는 지역구가 비일비재했던 이전 선거와 달리 이번에는 광주 1.71대 1, 전남은 1.76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오는 4월 총선 입지자들은 예선전부터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신안·무안 지역구를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 공천 희망자가 몰리면서 광주·전남지역에서 달라진 한나라당의 위상을 보여줬다.

광주에서는 동구와 북구갑 지역에 모두 3명씩 공천을 신청, 3대1로 최고의 경쟁률을 보였다.

당협위원장이 의무적으로 출마하던 과거 선거와 달리 기업인과 교수 등 다양한 경력의 정치신인들이 등장,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이다.

전남에서는 나주·화순에 6명이나 공천을 신청, 광주·전남지역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으로 16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민주당 전당대회 부의장까지 한 정철기(광양·구례)씨가 오랫동안 몸담아 온 민주당을 탈당, 한나라당에 공천 신청을 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한나라당은 9일 여의도당사에서 공천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5일까지 접수된 '4·9 총선'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최종 자격 심의를 벌이는 등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착수했다.

공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243개 지역구 1천176명의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최종 스크린을 통해 범죄기록 등이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격자 4명의 서류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공심위는 이명박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일인 오는 25일 전까지 지역별 공천심사를 끝내고 2월말에서 3월초 사이에 지역구별 후보를 1차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 단수후보를 압축하지 못한 지역은 2차로 경선을 통해 3월 중순까지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공심위는 비례대표 후보의 경우 3월 초순 신청 접수를 완료한 뒤 중순께 확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4·9 총선 한나라당 공천 신청자 명단

지 역	이름	나이	경 력
광 주			
동구	김정업	61	당협위원장
	강경수	53	기업인
	김태욱	59	전 방송인
서구갑	정용화	43	정당인
서구을	정순길	62	시민운동가
북구갑	이가연	55	당협위원장
	서경복	57	기업인
	정필중	43	기업인
북구을	김천국	51	당협위원장
남구	김영안	51	당협위원장
	노영복	65	조선대 교수
광산	조재현	47	기업인
전 남			
목포	양회주	59	기업인
	임송본	65	정당인
	천성복	45	정당인
여수갑	주봉심	61	기업인
여수을	심정우	49	기업인
순천	김기룡	45	당협위원장
	황선호	51	기업인
나주·화순	김경남	57	정당인
	김창호	45	기업인
	문종안	62	교육인
	원종열	59	정당인
	이상천	54	기업인
	임근옥	54	정당인
광양·구례	정철기	69	전 의원
	비공개 1인 신청		
담양·곡성·장성	비공개 1인 신청		
고흥·보성	신용수	63	단국대 교수
	장귀석	54	정당인
장흥·영암	채경근	52	정당인
강진·완도	김정원	45	기업인
해남·진도	설철호	57	당협위원장
무안·신안	신청자 없음		
함평·영광	정양섭	68	세무사
	한남열	50	정당인

신당-민주 통합 11~13일이 고비

이번 주 중반까지 결론…"협상 불발 땐 통합 없다"

지난달 22일부터 지루하게 끌어온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의 통합 협상이 금주 중 판가름날 전망이다.

양당은 설 이전 통합이 무산되자 협상결렬을 선언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휴기간에도 물밑협상을 진행했으며, 11-13일 사이에 통합 여부를 결론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당 우상호 대변인은 10일 당산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설 연휴 기간에도 통합과 관련된 대화는 오갔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이번주 중반이 고비이며, 그때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통합은) 안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통합의 필요성과 절박성에 대해 양당이 공감을 하고 있고,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주 중반까지는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고 말했다.

양당이 이처럼 금주 중반을 협상시한으로 설정한 것은 총선 공천과 관련된 일정 때문이다. 양당 모두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합 이후로 미뤄두고 있는 만큼 금주 중으로 통합 여부를 결론내지 않으면 공천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양당은 연휴기간에 신당 김원기 의원-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 라인 등을 가동해 물밑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당 호남지역의 한 의원은 "통합 없이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다수였다"며 "공동대표 문제에 대해 양당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 ☎(062)220-0524
• FAX:227-9500

건설업 합병 및 양도·양수공고

에네스건설주식회사 (갑)과 보라종합건설주식회사 (을)은 2008년 1월 24일 개최된 각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이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는바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19조 규정에 의거 양도인(피합병회사)이 영위하는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합병으로 인한 양도·양수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관계회사에 아래 기한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2월 11일

1. 합병 예정일 : 2008년 3월 15일
2. 합병대상 건설업의 종류 : 조경공사업 13-0034
3.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가. 기 간:2008년 2월 11일 ~ 3월 13일
   나. 제 출 처:양도자 또는 양수자
4. 양도자(피합병회사)
   상 호:보라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자:강연욱
   소재지:충남 아산시 모종동 592-12 (☎042-535-6080)
5. 양수자(합병 존속회사)
   상 호:에네스건설 주식회사
   대표자:백춘기
   소재지: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암리 390-1 (☎062-572-5500)

에네스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백 춘 기
보라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 연 욱

합병 및 주권제출 공고

에너스건설 주식회사 (이하(갑))과 보라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을))은 2008년 1월 24일 각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수반하여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은 본 공고 게시일 익일로부터 2008년 3월 13일까지 각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08년 2월 11일

(갑) 에네스건설 주식회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암리 390-1
대표이사 백 춘 기

(을) 보라종합건설 주식회사
충남 아산시 모종동 592-12
대표이사 강 연 욱

산 행 안 내

2월 12일(화)

▲달성산악회 전주 모악산(금산사)2월12일(화) 종합운동장 7시 40분 , 백운로타리 8시에출발 8시20분 ※다음카페 : 백성산악T. 011-605-3477

▲염주산악회 지리산 천왕봉2월 12일(화) 염주체육관 8시 출발(문예회관후문 8시 20분) T. 011-608-2206

2월 13일(수)

▲광주야크산악회 전북 전주 모악산2월13일(수) 국제호텔앞 8시 출발(문예회관 후문 8시 30분) T. 681-1811, 011-9620-9521

▲광주알주산악회 전남 여수 금오산,봉화산 2월13일(수) 광주역 8시 출발 T. 011-602-3709

2월 14일(목)

▲광주가고파산악회 전남 강진 만덕산2월14일(목) 광주역 8시 출발(진월동 구 채태마트 7시 30분) ※다음카페 : 광주가고파산악회 T. 011-629-2678, 011-601-8238

▲광주한국산악회 제주도 우도 및 한라산 눈꽃산행(1박2일특별산행) 2월14일(목) 06시 염주체육관(문예회관후문경유)출발 ※예약바람 T. 011-615-2279

2월 16일(토)

▲광주젊은산악회 남해 금산 2월 16일(토) 6시40분 천년쌍암공원(주차장)(동부아파트 건너편) 출발 상무지구 무각사 7시, 비엔날레주차장 7시15분,동광주나들목주유소앞 7시30분 ※다음카페 : daum.net/youngmoutain T. 010-4000-4257

▲광주토요산악회 여수 금오도 대부산2월 16일(토) 염주체육관 6시30분 출발(광주역,비엔날레주차장경유) http://cafe.daum.net/gwangjutoyo 관조 T. 011-608-4267 , 011-634-2044

2월 17일(일)

▲광주지구 라이온스 산악회 봉영 미륵산 2월17일(일) 오전 8시 비엔날레 후문 주차장(회장 : 김영재) T. 011-666-3291

▲광주일파인클럽 힐앙 백운산 2월 17일(일)7시 하남하이마트 7시20분 염주체육관 7시40분 비엔날레 주차장 코스 : 백운교-국계암-중봉-정상-서리봉-용소-선녀암-백운교(5시간) ※다음카페 :cafe.daum.net/kjwhitetiger T. 011-624-5005

▲광주한빛산악회 두륜산 향적봉 2월17일(일) 회비:2만원(오찬료포함)석식제공 오전7시30분 광주역 광장앞 출발 7시40분 문암동예술회관 후문경유 7시50분 비엔날레 박물관주차장 경유 ※다음카페 : 광주한빛산악회 T. 010-3131-3580

▲전남산악회 전남 가이산 2월17일(일) 광주역 8시출발(문예회관후문8시10분) ※다음카페 전남산악회 T. 010-9776-3630 , 011-642-5197

▲요산요수산악회 경주 보함산 2월17일(일) 전대병원응급실건너 지하철3번출구 7시 (광주역,동광주 경유) 출발 ※다음카페 : (사)요산요수산악회 T. 011-620-2002

40년 전통!! 합격률1위!! 전국수석 배출!!
공인중개사
본원출신 전국수석
개강 첫진도 시작반 3월 3일 기본서 이론 2개월 완성
주택관리사 첫진도 개강 : 3월3일 오전반 야간반
【 응시생 156,000여명중 】 본원출신 송은영님 평균 96.7
국비무료 고용보험가입근로자 수강료환급
2월 무료청강 한정!!! 》》 "현재 접수중" 《《
광주고시학원 본원 ☎227-8003 (구)도청 앞 전일빌딩 뒤
첨단점 ☎971-0002 빅마트 첨단점 옆 광주은행 4F

제 권 판 결

주문 아래 목록 기재 증서의 무효를 선고한다.

아래 목록 기재 증서에 대하여 2007. 11. 2. 공시최고를 하였는바, 그 공시최고에서 정한 2008. 2. 4. 16:00까지 권리의 신고나 청구 및 증서를 제출한 자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번호	신 청 인	목 록
2007카공 557	윤충현 광주 서구 풍암동 산 191-1 송달장소 : 광주 서구 화정동 1168 염주빌라 401호	자기앞수표 번호:라가22132940~45 금액:각금1,000,000원(6매) 자기앞수표 번호:라가22132955~57 금액:각금1,000,000원(3매)발행일:2007년 9월 10일 발행지급지:광주광역시 발행인겸지급장소:서광주농협 화정지점 최후소지인:윤충현
2007카공 560	대양종합전기 주식회사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664-1 대표이사 김일주	약속어음 번호:자가03210620, 자가03211462, 자가03211464, 자가03211467 금액:백지 발행일:백지 발행인:대양종합전기 주식회사 지급인및지급기일:백지 지급장소:광주은행 용봉지점 최후소지인:대양종합전기 주식회사
2007카공 569	박강준 광주 서구 쌍촌동 1337-3 중흥아파트 106동 1201호	가계수표 번호:아바06653288, 금액:금3,000,000원 발행일:1998년 2월 11일 가계수표 번호:아바00378570, 아바00378573 금액:각금3,000,000원(2매) 발행일:각 2000년 4월 25일 가계수표 번호:아바00692798 금액:금3,000,000원 발행일:2001년 1월 19일 가계수표 번호:아바00385698 금액:금3,000,000원 발행일:2004년 6월 1일 발행인:박강준 최후소지인:박강준 지급장소:제일은행 상무지점
2007카공 576	텔파이코리아 주식회사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408-1 송달장소: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5-30 대표이사 이대운 대리인 이민형 원주시 단계동 이편한세상아파트 105동 701호	표지어음 번호:00234672 금액:금21,619,633원 발행일:2007년 7월 25일 발행인겸지급장소 : 한국외환은행 하남공단지점 최종소지인:텔파이코리아 주식회사
2007카공 570	정묘순 광주 광산구 산월동 첨단1차부영아파트 105동 106호	가계수표 번호:00812587~600, 00235947, 00812403, 00812418, 00812540 금액:각금 미기재(18매) 발행인:정묘순 지급장소:외환은행 서방지점
2007카공 578	배민옥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아파트 258동 101호 대리인 김춘금 광주 서구 쌍촌동 삼우2차아파트 202동 206호	자기앞수표 번호:바가00000124 금액:금18,000,000 자기앞수표 번호:바가00000125~28 금액:각금10,000,000(4매) 발행일:2007년 9월 10일 지급기일:미상 발행인:광주은행 북부지점 최후소지인:배민옥
2007카공 583	정명준 광주 남구 월산4동 958-17 송달장소:광주 북구 유동 1-17 대성증기	약속어음 번호:자가02395146 금액:미기재 발행인:정수일 발행일:미기재 발행지:미기재 지급기일:미기재 지급지:(주)우리은행 유동지점 지급장소:(주)우리은행 유동지점 최후소지인:정수일

2008년 2월 11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박 정 훈